

■ 조계종 균종특별교구 설치 의미와 과제

3월 23일 조계종 제166회 임시 중앙총회를 통과,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되는 '균종특별교구법'은 균종교 역사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30여명의 균법사, 400여개의 균법당, 15만의 균불자를 거느린 거대 조직 균종교. '명치만 큰 아이' 같았던 균종교를 효과적으로 키워낼 시스템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타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불교계 균종교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절호의 기회로도 판단되고 있다.

주지급의 위상을 갖게 된다. 따라서 종단 내에서 균종교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의미가 있다. 균종특별교구는 역량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균종교 정책을 집행할 주체가 된다. 불자들의 포교와 후원도 집약된다. 사찰, 스님, 불자들 중심의 산발적인 균종교 지원을 특별교구관 강력한 행정단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다. 산적인 속제 풀기가 관건 그러나 특별교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어려운 역할을 자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서둘러야 하는 것은 '내부 조직 다지기'다. 우선 불교계의 여론을 수렴해 균종특별교구법 가동시절 세부법안, 행정조직을 시급히 갖

행편이다. 분담금은 사찰 재정 행편에 맞게 책정돼야 하며, 중앙분담금 면제는 당분간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외부적인 도전도 해결해야 한다. 가장 서둘러야 할 것은 균종파송을 원하는 천대종과 진각종과의 협의다. 천대종은 간접적으로 조계종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만성적인 균승요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타종단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신교와 가톨릭의 공격적

군포교 새시대 '신호탄' 올랐다

체계적 정책집행·후원 확대 큰 기대

균승역량강화 등 시스템 정비 시급

성장 담보 계기 마련

임선 균법사와 균불자들은 이번 일을 반가움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균승단장 장승화 법사는 "비로소 균종교의 외형적 성장을 담보할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균종교에 큰 도약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는 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집약'과 '통일'로 요약된다. 그리고 중심에는 '균종교위원회'를 대신할 '균종특별교구'가 있다. 균종특별교구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무원장이 임명하는 특별교구장은 교구본사

면서도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된다. 또한 균종교 자율성도 커진다. 자체적인 예산, 인사, 심의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행사해온 권한 중 상당부분을 균종특별교구가 가지게 된다. 그래서 관계자들은 특별교구 발족은 군내에서의 불교포교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과 성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믿고

취야 한다. 이와 함께 균종교 현장에서 활동할 균승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균승요원 확보, 예비역 균법사의 전문성 활용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특별교구 조직을 움직이기 위한 예산 확보는 필수적인 요소다. 적정한 물적 인적 지원 없이 균종교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종단 차원의 예산 지원을 바라볼 뿐 별다른 뾰족한 대책이 없는

군선교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도 급하다. 개신교에서는 이미 군장병 75%를 복음화한다는 '비전 2020' 운동을 펼치고 있고 올해는 육군본부 홈페이지에 인터넷 신앙강화를 실시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가톨릭 역시 1989년 군종교구를 발족시킨 후 막대한 물량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계종 균종교위원장 성광 스님은 "군종교구발족을 통해 불교계가 군포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며 "군을 불교신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호국불교정신을 배우는 도량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출가연령제한폐지' 다음에...

후속조치 불분명 이유 분과위 조정 안돼

조계종 166회 임시중앙총회가 3월 23일 교육법 개정안을 차기총회로 이월시킴으로써 총무원이 추진해온 출가연령제한 폐지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조계 스님을 비롯한 23인의 의원발의를 통해 안건이 상정됐지만 원당 스님이 "분과위 조정이 덜된 안건을 총회가 다루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 차기 총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출가연령제한 폐지가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법안 개정이나 서야할 총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총무원 집행부의 준비부족과 상한선 완전폐지로 인한 후속조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일부 총회의원들의 우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총회 교육분과위원회 장 진구는 3월 14일(유회), 20일 두

차례 역사문화기념관 2층 총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출가연령폐지에 대한 격론을 벌였다. 참석위원들은 연령제한 폐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폐지 후 고령출가자들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총회상정을 보류했다. 이 과정에서 총무원 집행부는 시행 2년차인 제도를 다시 개정하는데 따른 출속시비를 줄이고 자칫 상한선 폐지가 사회인들의 도파쳐 마련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제도 폐지 강행보다는 차기총회 이월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조용수 기자

조계종 제166회 임시중앙총회 이모저모

스님 10명 중 1명 60세 이상

조계종 스님 10명 중 1명 이상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60세 이상 스님 10명 중 8명 이상은 주지 및 7직 소임을 맡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문 스님이 총책 직임한 결과에 따르면, 분한심사 기준 조계종 스님은 사미 1757명, 사미니 1400명, 비구 4660명, 비구니 4683명 등 총 1만2500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은 사미 81명, 사미니 89명, 비구 728명, 비구니 878명 등 총 1776명(14.2%)이었다. 또 60세 이상 중 현직 주지 및 7직 소임을 맡고 있는 비구 185명, 비구니 133명 등 318명을 제외한 1458명(사미 81명, 사미니 89명, 비구 543명, 비구니 745명)은 별다른 소임이 없었다.(82.1%)

한편 조사 결과 조계종 스님 중 승량이 가장 많은 사미는 1929년 생(2명), 사미니는 1919년 생(1명), 비구는 1936년 생(1명), 비구니는 1931년 생(1명)이었다. 세람이 가장 많은 사미는 1915년 생(1명), 사미니는 1911년 생(1명), 비구·비구니는 1904년 생(각1명)이었다.

성보박물관 5곳 학예직·일반직 없이 운영

조계종 18곳 개관 성보박물관 중 5곳은 학예직과 일반직 없이 운영되고 있다. 분경 스님이 총책 직임한 결과에 따르면, 18곳의 개관 성보박물관 중 학예직과 일반직을 같이 두고 있는 박물관은 9곳, 일반직만 두고 있는 사람은 3곳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5곳은 학예직과 일반직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구본사 사회복지시설 총 332곳

조계종 교구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총 332곳으로 조사됐다. 분경 스님이 총책 직임한 결과에 따르면, 직할이 서울노인복지센터 등 155개 시설, 동화사가 대구남구종합사회복지관 등 25개 시설, 신홍사·월정사가 속초종합사회복지관·강릉시장에인종합복지관 등 각 18개 시설을 포함해 총 332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산 관동도로 보살금 논란

지홍 스님은 재무부 총책 직임 때 "회통사가 2004년 북한산 관동도로 시행사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측에게 10억원을 보살받았다고 한다. 이를 본사인 봉선사에 갔다 왔고 봉선사에서 그 돈을 썼다고 한다. 이 가운데 1억원을 총무원에 썼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다시 돌려줬다고 한다.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재무부장 동진 스님은 "환경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총무원 사회복지에서 예치했다. 관계자들과 논의한 끝에 회통사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대전사·석왕사 문제 거론

진구 스님은 재무부 총책 직임 때 "법주사 말사인 대전 전사전을 건립할 때 법주사 운영위원회에서 1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대전사 대응전과 묘사채 명의가 속인인 장모씨 이름으로 돼 있다. 재판에서 저 장모씨에게 넘어갔다. 또 장모씨가 대응전과 묘사채를 근저당 설정해 28억 7500여만 원을 잡았다. 가압류까지 당해 부채가 43억 원 정도 된다"고 주장했다. 무자 스님도 "부친 석왕사 1년 예산이 18억인데 종단 분담금이 3백 몇 십만 원이다. 그런데도 분담금을 안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무부장 동진 스님은 "중앙승가대 분담금 미납 2년 치와 더불어 미납 분담금 6년 치를 3월 11일 내 됐다"고 답변했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4급 승가고시 3월25일 460명 응시

조계종 정식 스님인 비구(니) 법계 품수를 위한 4급 승가고시가 3월 25일 중앙승가대에 열렸다. 이번 승가고시는 2001년 4월 이전 사미계를 수계한 사미·식차마(비구)로 종단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한 460(사미 249명, 식차마(비구) 211명)명이 응시했다. 불교학개론, 불교사, 치문, 사지, 사교, 화엄경, 율학, 종관,

유식, 조계종사 10개 과목 100문항의 문제가 출제됐다. 조용수 기자

국방부에 균승 증원 요청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3월 23일 윤광웅 국방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군종장교 불교정원 증원을 요청했다. 이어 법장 스님은 "한 종교에서 육군 군종감을 계속 맡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형평에 맞는 인사를 건의했다. 윤 장관은 "종교 형평성에 맞는 인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남동우 기자

대중사 법계 품수식 봉행

태고종, 30일 선암사에서

태고종 대중사 법계 품수식이 3월 30일 오전 11시 태고종림 선암사에서 봉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승정원장 남파, 원로회의 부의장 보봉 원봉, 원로의원 청경 혜봉 지족 보안 벽과 혜종 남호 법장 덕화 스님 등 총 12명의 스님이 대중사 법계를 품수하게 된다. 전통불교의식으로 봉행되는 법계 품수식은 식전행사로 선조사 차례에 이어 영산재 의식,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의 법계증서 수여식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총무원장 운산 스님과 원로회의 의장 일우, 중앙총회 의장 인공, 중앙사정원장 법장 등 종단 원로 및 종간 간부 스님들이 대거 동참한 가운데 치러질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국제포교사회 연수

강화도 연등국제선원

국제포교사회(회장 김봉래)는 3월 19-20일 강화도 연등국제선원으로 상반기 연수를 다녀왔다. 45명의 국제포교사가 참가한 이번 연수에서는 승가위원회 신설 등 회칙 개정안을 다룬 임시총회, 연등축제 관련 운동 교육, 국제포교 활동에 대한 경험사례 발표 등이 이루어졌다. 한편 연수 후 국제포교사회는 안산의 스리랑카 법당 마하보디사 개원식에 참석했다. 강지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대표전화(02)737-8881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털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예시마온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4-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제1차 공청회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불교대학발전위원회는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불교대학의 발전이 건학이념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의 교육목표
■일시: 2005년 4월 8일(금) 오후 2시
■장소: 동국대학교 덕암세미나실
○사회: 혜담 스님(각화사 주지)
○발제 및 논평
1. 기초발제 - 발제: 영담 스님(불교대학발전위원회 위원장,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2.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의 출가자 교육목표 - 발제: 학담 스님(조계종 총림학교관리위원, 중앙총회의원) - 논평: 정인 스님(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중앙총회의원), 각목 스님(화엄학림 강사)
3.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의 재가자 교육목표 - 발제: 이평래 교수(총남대 철학과, 한국불교학회 회장) - 논평: 조용길 교수(동국대 불교대학장),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불교대학발전위원회
문의: 02)2260-3768

광복 60돌, 6.15 남북공동선언 5돌 기념
북한 최고 화가
故 김기만 화백 유작 특별전
운보 김기창 화백의 동생, 북한 공훈예술가, 조선화 4대 화가
북한 조선화의 진수를 느껴보세요.
■일시: 불기 2549(2005)년 3월 30일(수) ~ 4월 5일(화)
■장소: 토포하우스(인사동 갤러리, 02)734-7555)
■리셉션: 3월 30일 오후 5시 토포하우스 2층 전시실
■전시: 오전 10시 ~ 오후 7시 \*화환은 정중히 사절합니다.
(사)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평불협), 북한 사리원 금강국수공장후원회, 통일법당
평불협사무국: 전화 1544-0408(대) 전송: 02)741-9347
홈페이지: http://www.bubtanet.org 이메일: bubta@bubtanet.org